

#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Effect of Ego-Resilience and Peer Attachment upon Self-Regulation Learning Ability In Early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이현주, 권수정  
김해대학 사회복지과

Hyun-Ju Lee(kgade@naver.com), Soo-Jung Kwon(javajib@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방법으로 학습에 있어 자기조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변인에 청소년의 내적 힘인 자아탄력성과 외적지지체계 중 하나인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자는 총 2,351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 또래애착(의사소통, 신뢰, 소외) 그리고 자기조절학습능력(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의 잠재변수와 하위변수 모두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셋째, 삶의 만족도도 직접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넷째,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여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자기조절학습능력 | 자아탄력성 | 삶의 만족도 | 또래애착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which may operate within peer attachment as well as any links which may exist ego-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and self-regulation learning ability in adolescence.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consisted of 2,351 middle school students. the main result were as follows: first, each of three ego-resilience and peer attachment had an influence upon life satisfaction and self-regulation learning ability albeit in different ways. second, life satisfaction had a direct influence on self-regulation learning ability.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peer attachment upon and self-regulation learning ability were significant. finall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 for further research.

■ keyword : | Ego-resilience | Life Satisfaction | Self-regulation Learning Ability | Peer Attachment |

## I. 서론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을 어떻게 조절해나가는가에 대한 논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인간은 동기화됨으로써 행동하게 되는데 동기는 자기조절학습을 구성하는 감정, 기대, 가치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E]. 학생들은 인지적·초인지적 인 지각의 선택적 사용을 통해 스스로 학습능력을 개선할 수 있고 그들에게 유리한 학습환경을 선택, 구성할 뿐 아니라 창조할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수업의 양과 형태를 선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자기조절학습은 외적인 통제에 행동하기보다는 학생들 자신이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학습경험을 만들고 통제하며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2].

또한, 자기조절학습은 상황적 요구에 자아를 통제하고 조절시키는 메타적 능력인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다. 자아탄력성은 자아통제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동기조절능력과 인지능력을 포괄하는 개념[1]으로, 주어진 상황적 욕구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며, 적극적인 해결력을 구사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성격[4]이다.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 높기 때문에 낮은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욕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하게 된다[F]. 또한 자신감이 있어 학교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할 뿐 아니라, 정서의 표현이 적절하고 공감적이어서 또래관계가 원만하며, 인지적으로도 영리하다[K].

그리고 이러한 자기조절학습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도 연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조절을 잘하는 개인은 학업성취도가 높고[C], 그리고 학업성취도 높을수록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도 높기 때문이다[15].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통해 느끼는데, 가정생활만족도에서 초·중, 고등학생 중 초등학생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중·고등학생은 만족도가 같은 수준은 보였고,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고등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14]. 따라서, 청소년들이 삶의 만족은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학교생활만족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얼마만큼 활용하여 학업성취를 이루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청소년이 학교에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발휘에서 부모, 교사의 영향뿐만 아니라 또래간의 관계의 질인 또래애착도 관련이 있다.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20]. 또한 또래간의 인정과 원조가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정서적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30]. 청소년기의 또래와 안정된 애착경험은 자아개념 발달과 사회적 자신감을 높여주고, 또래관계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또래로부터 얻은 이러한 정서적 지지는 안정감과 자아개념 발달에 도움이 된다[N]. 그리고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경험은 또래와의 애착형성에도 긍정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한다[I].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연관이 있는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와 또래애착이 어떠한 관계에 있고, 삶의 만족도는 변수들 간의 있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Self-Regulation Learning Ability)은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사용하며, 동기적으로 고무되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능력이다[19][D]. 학습(learning)은 본질적으로 자기조절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내용에 집중해야 하고, 스스로 학습속도를 조절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는 복잡한 과정이다. Zimmerman(1990)은 ‘자기조절학습이란 상위 인지적·동기적·행동적으로 자신의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를 촉진하는 실제적인 촉진자라고 하였다. 상위 인지적으로 학습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독특한 학습과정, 절차, 또는 반응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학습하는 동안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며, 자신의 자기 조절적 과정을 어떻게 선택

하고, 왜 선택하는지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조절학습에서 인지적·동기적 및 행동조절은 다음의 하위변인들로 설명되어진다[25]. 인지조절의 의미는 학습자가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실제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동기조절은 학습자에게 도전감을 주는 과제를 선택하고[G], 학습에 많은 양의 노력을 소모하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끈질긴 인내심을 보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행동조절 차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자는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한다.

연구자	내용
자기조절학습 구성요소 → 학업 성취	1. 정미경(1999) 2. 정미선(2007) 3. 문병상(2012)
학업성취 → 자기조절학습 능력	1. Zimmerman과 Martinez-Pons(1986) 2. 류관열(2010) 3. 양명희, 이경아(2012)
자기조절학습 구성요소 → 다른 변인, 훈련프로그램	1. 김정환 · 정미수(2005) 2. 김아영 · 주지은 · 정소영(2005) 3. 박성익, 김미경(2004)
발달, 성차, 학습양식, 학습 도구 → 자기조절학습 능력	1. 손종식(1993) 2. 김효원(2010) 3. 구영수, 양연숙(2013) 4. 심선경(2013)

최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 학업프로그램, 발달, 성차 등의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정서적, 사회적 지지가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9][23],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적인 힘인 자아탄력성과 외적 힘인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 2. 자아탄력성, 또래애착과 자기조절 학습능력간의 매개변수로서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자아통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적인 제약이나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대처 능력이다[L].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주변상황에 대해 자신이 대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대처전략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도 높다[14][A]. 또한 자아탄력적인 청소년들은 학업에 있어 지적성취도가 높고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여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다[A].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한다[G].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만족스러운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며, 낮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B]. 따라서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가 높을 때, 자발적인 학습참여, 계획과 자기평가가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수행 할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 능력도 함께 길러지게 된다. 삶의 만족도를 고찰한 연구들을 보면 의미 있는 타자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주목해 왔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으로 부모 요인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또래와 보내는 시간과 영향력이 늘어나고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친밀감 또한 증가하게 된다[E]. 또래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행복의 수준이 높고,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친구를 필요로 하며 친구가 많을수록 대인관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또래친구들과 집단을 형성하고 많은 시간을 또래친구들과 보내게 됨으로써 부모의 일방적인 권위를 가지는 애착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청소년기는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를 주요 애착대상으로 여기고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K].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는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과 주요한 관계에 있으므로,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변수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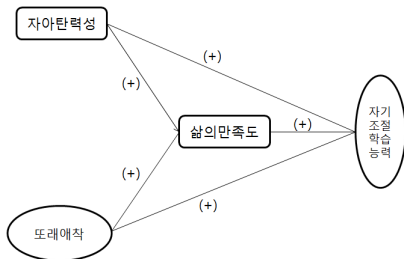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7년간 반복·추적 단기종단조사를 목적으로 2010년에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구축한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9년도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 중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stratified multi-stages clusters sampling)에 의해 표본으로 뽑힌 78개 학교 1개 학급의 전체 청소년들 및 보호자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되었다.

#### 3. 측정도구

##### 3.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외(2006)가 사용한 척도[5]로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나는 사는게 즐겁다',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내 삶이 행복하다'고 는 3문항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각 지표는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 지표들을 역채점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변환하였다. 변수의 Cronbach' a는 .814로 나타났다.

##### 3.2 자아탄력성

Block &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 [M]를 유성경(2002)이 번역한 뒤 수정, 보완한 문항[27]을 사용하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남들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의 정적문항과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등의 부적문항 9문항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는 .839로 나타났다.

##### 3.3 또래애착

Armsden & Greenberg(1987)가 제작한 또래애착척도(IPPA)[H]를 수정하여 재구성[34]하였다.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를 1요인으로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를 2 요인으로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다'를 3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1요인은 의사소통, 2 요인은 신뢰, 3요인은 소외로 명명하여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 Cronbach' a는 의사소통 .823, 신뢰 .753, 소외 .627로 나타났다.

##### 3.4 자기조절학습능력

양명희(2000)에 의해 개발된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 도구[25] 84문항 중 요인분석을 통하여 재구성한 문항에서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16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수정·보완된 16개 문항은 성취가치,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숙달목적지향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 Cronbach' a는 성취가치 .875, 행동통제 .714, 학업시간관리 .859, 숙달목적지향 .712로 나타났다.

1.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 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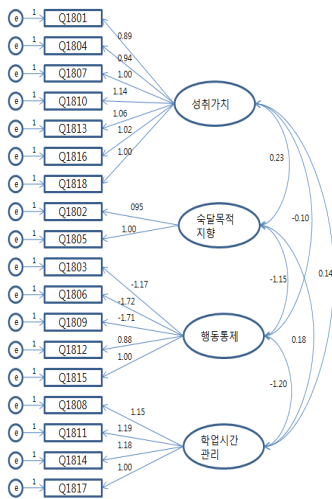
####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통계기법은 연구목적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AMOS 18.0과 SPSS 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작·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구성개념간의 이론적 관계와 상관성의 측정지표를 통한 경험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모형을 구성하는 모수의 추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적합도와 변수들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한 분석이다.

### IV. 분석결과

#### 1. 측정모형분석

측정변수로 사용된 또래애착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잠재변수가 측정변수의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또래애착에 대한 결과는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CFI= 0.994 TLI= 0.984 RMSEA=0.036로 좋은 적합도라 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CFI= 0.926 TLI= 0.902 RMSEA=0.068로 적절한 적합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측정모형이 이론을 매우 잘 적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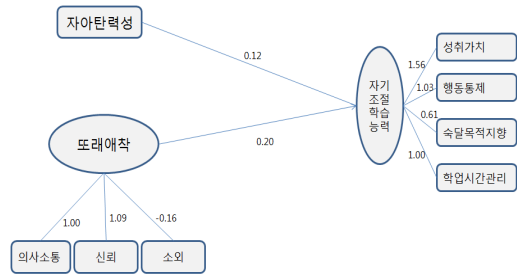


$\chi^2 = 1537.092$   $P = 0.000$   $df = 129$   $\chi^2/df = 11.915$   $CFI = 0.926$   $TLI = 0.902$   $RMSEA = 0.068$

그림 2.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모형분석

#### 2. 연구모형분석

[그림 1]의 연구모형은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chi^2 = 244.406$   $P = 0.000$   $df = 18$   $CFI = 0.959$   $TLI = 0.919$   $RMSEA = 0.073$

그림 3.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기본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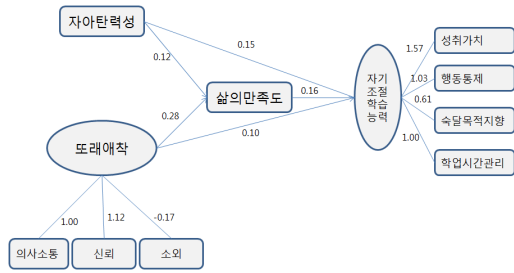
[표 1]의 분석결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자기조절학습능력에서 경로계수가 0.12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또래애착→자기조절학습능력에서도 경로계수가 0.20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의 증가와 또래애착의 증가는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잠재변인간의 경로계수

모수	모수추정치	S.E.	C.R.
또래애착 → 삶의만족도	0.284(0.193)	0.035	8.003
자아탄력성 → 삶의만족도	0.118(0.333)	0.008	15.017
자아탄력성 → 자기조절학습능력	0.100(0.357)	0.008	12.974
삶의만족도 → 자기조절학습능력	0.164(0.206)	0.019	8.625
또래애착 → 자기조절학습능력	0.148(0.126)	0.032	4.591

다음은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4]와 같이 경로계수에 대한 추정치가 제시되었다. 두 가지 경로 즉 아동의 자아탄력성→삶의만족도→자기조절학습능력과 아동의 또래애착→삶의만족도→자기조절학습능력은 모두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직접적으로 자기조절학

습능력을 증가시키고(.357),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여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간접적으로도 증가시켰다(.069). 즉, 아동은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자기조절학습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290.128$   $P = 0.000$   $df = 23$   $CFI = 0.957$   $TLI = 0.916$   $RMSEA = 0.070$

그림 4.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모형분석

그리고 아동의 또래애착도 직접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증가시키고(.126), 또한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여서도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간접적으로 증가시켰다(.069). 즉, 아동은 또래애착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자기조절학습능력도 높아지게 된다.

표 2. 모형분석의 효과 분해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또래애착→자기조절학습능력	0.196	-	0.196
자아탄력성→자기조절학습능력	0.119	-	0.119
또래애착→삶의만족도→자기조절학습능력	0.126	0.040	0.166
자아탄력성→삶의만족도→자기조절학습능력	0.357	0.069	0.425

## V.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변수로 활용되어졌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자기조

절학습능력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 논의에 앞서, 각 변수들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 등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지 않았을 때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 및 일반적응을 측정하는 학교적응척도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13].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교에 대한 흥미가 높고 학업성취가 좋으며, 학교규칙을 잘 준수[29]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는 또래애착을 매개하여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만족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증가시켰다. 또한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높아진 삶의 만족도는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높였다. 또래애착이 높으면 자아탄력성도 높고[3][11]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2][24]. 그리고 부모 및 또래애착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적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셋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변수간의 매개변수의 역할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신미·전성희·유미숙(2012)의 연구[18]에 따르면, 청소년이 부모, 선생님, 이웃과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을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삶의 만족을 느끼면 학교생활적응도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학습과 학업성취와 관련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청소년의 개인 내적부분인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개인 외적변인인 또래애착이라는 주요 변인들과 함께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등 각각의 변인들이 모형 내 변인들과 어떤 영향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청소년 시기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이전의 연구는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관련된 영향요인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지만,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원인에 대한 관계적 접근으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초·중·고등학생으로 집단별 비교 연구함으로써 청소년의 최대 관심사인 학업성취인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고민숙, 자아탄력성, 의사결정 유형 및 성패귀인 유형과의 관계: 애착 유형과 생활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 고영남, “중학생의 부애착, 모애착, 또래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pp.111-131, 2008.
- [3] 권지은, 부모 및 또래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4] 김미향, 자아탄력성 증진 훈련이 중학생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5]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정렬, 최지영, 이가영,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 결과부문 측정지표검사”,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2006.
- [6] 김아영, 주지은, 정소영, “수학성취 수준별 집단의 성취도와 학습전략 사용 및 변화에 대한 자기조절학습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3호, pp.667-698, 2005.
- [7] 김정환, 정미수, “의지조정전략과 행동통제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5권, 제1호, pp.151-171, 2005.
- [8] 김지연, 정봉교, “BAS/BIS, 자아탄력성과 웰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6권, 제2호, pp.313-327, 2011.
- [9] 김호정,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0] 김효원, 다변량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1] 김현순,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2] 김현진, 주의집중향상 프로그램이 첨가된 자기조절학습 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3] 박연수,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4]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초·중·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5권, 제1호, pp.94-118, 2000
- [15] 박효정, 연은경, “한국 중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 실태 분석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 pp.2003-2005, 2003.
- [16] 박은민,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제13권, 제3호, pp.75-88, 2010.
- [17] 손종식,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자기규제 학습수준과 학업성취 및 지능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18] 신미, 전성희, 유미숙,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분석”, 아동학회지, 제33권, 제1호, pp.81-92, 2012.

- [19] 신민희, “자기조절학습이론: 의미, 구성요소, 사례원리”, 교육공학연구, 제14권, 제1호, pp.143-162, 1998.
- [20] 장석진, 송조원, 조민아,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5호, pp.161-187 2012.
- [21] 정미경,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관한 구조모형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22] 정미선,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이 과학탐구능력, 학업성취도, 과학적 태도 및 탐구동기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23] 조복희, 이현민,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제2권, 제1호, pp.17-28, 1998.
- [24] 조진만, 강정환, 이병규, “가족구조와 친구연결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논집, 제43권, 제1호, pp.47-71, 2012.
- [25] 양명희,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26] 유성경,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 제16권, 제4호, pp.189-206, 2002.
- [27]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5호 pp. 123-132. 2005.
- [28] 이승훈,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이 고등학생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9] 이예승,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4.
- [30] 이호선,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31] 임정하, 정옥분,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8권, 제1호, pp.163-175, 1997.
- [32] 최승연,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자기조절학습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3] 현미열, 이종은, 박선남, “청소년의 희망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16-123, 2003.
- [34] 황미경,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5] 문병상, “청소년들의 미래목표 인식, 자기조절학습전략, 학업성취도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6권, 제4호, pp.983-1000, 2012.
- [36] 류관열,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타인기대와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효과,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37] 양명희, 이경아,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의 관련성: 변화추이 및 인과적 방향성 검토”, 교육과학연구, 제3권, 제2호, pp.175-196, 2012.
- [38] 박성익, 김미경,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과 학습효과에 관한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제5권, 제2호, 2004.
- [39] 구영수, 양연숙, “영재아와 일반아의 학습양식, 자기조절학습전략 및 학습몰입 비교연구”, 영재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pp.171-199, 2013.
- [40] 심선경,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도구와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간의 관계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2013.
- [A] B. E. Compas, B. R. Hinden, and C. A. Gerhard,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46, pp.265-293, 1995.
- [B] B. J. Zimmerma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Vol.25, No.1, pp.3-17, 1990.
- [C] B. J. Zimmerman and M. Martinez-Pons,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23, No4, pp.614-628, 1986.

[D] B. L. McCombs, "Process and skills underlying continuing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toward a definition of motivation training interventions," Educational Psychologist, Vol.19, pp.199-218, 1984.

[E] D. Schunk, Social cognitive theory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B. Zimmerman & D. Schunk(Ed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83-110, 1989.

[F] E. C. Klohnen., E. A. Vandewater, and A. Young, "Negotiating the Middle Years: Ego-Resiliency and Successful Midlife Adjustment in Women," Psychology and aging, Vol.11, No3, pp.431-442, 1996.

[G] E. S. Elliot and C. S. Dweck, Goals: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4, pp.5-12, 1988.

[H] G. C. Armsden and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pp.427-453, 1987.

[I] J. P. Allen and D. Land,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and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319-335).NewYork: The Guilford Press. 1999.

[J] H. Freeman and B. Brown,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0, No.6, pp.77-106, 2000.

[K] J. H. Block and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A. Colloness(Eds.), Minesota symposia and child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Vol.13, pp.39-101, 1980.

[L] J. Block,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Vol.53, pp.281-291, 1982.

[M] J. H. Block and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N] W. M. Bukowski, and B. Hoza,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pp.15-45), New York: Wiley. 1989.

#### 저 자 소 개

이 현 주(Hyun-Ju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사회복지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김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 지역사회, 가족복지, 청소년.

권 수 정(Soo-Jung Kwon)

정회원



- 2010년 2월 : 경성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사회복지학 석사)
- 2010년 3월 ~ 현재 : 김해대학교 사회복지과 외래강사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교육